

결혼이주여성 대상 교육용 한자성어 목록 선정 방안

A Study on the list of Chinese Characters Idioms with Korean Education Selected for Married Immigrant Women

이춘양*, 조지형**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전공*,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성교양학부**

Chun-Yang Li(lcy070926@naver.com)*, Ji-Hyeong Cho(kaisercho@naver.com)**

요약

국내 체류 결혼이주여성 중 10년 이상 장기 정착비율이 증가하고(48%) 5년 미만의 단기 정착비율은 감소(16%) 하는 오늘, 결혼이주여성 중심 한국어 교육 및 연구는 여전히 초기 입국자에게만 집중돼 있다. 체류 기간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및 교재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본 연구는 초기 입국자가 아닌 중·고급 수준의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녀양육기, 자녀교육기 및 가족역량강화기에 해당하는 결혼이주여성 중심 한국어 교육에서 한자성어의 활용 가능성 및 교육적 가치를 탐색하고,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 한국어 교육 및 교재 개발에 적합한 한자성어 목록 선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 한자성어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은 결혼이주여성의 언어습득·정보획득 측면, 인간관계·생활태도 측면, 문화이해·사회적응 측면, 자녀 양육·학습지도 등 측면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 결혼이주여성 중심 한국어 교육에서 지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와 더불어 결혼이주여성 중심 한국어 교육 및 교재 개발에 적합한 한자성어 130개를 4단계 과정을 걸쳐 교육용 목록을 선정 및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향후 결혼이주여성 중심 한국어 교육연구 및 교재 개발에 활용되는 참고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 중심어 : | 결혼이주여성 | 한국어 교육 | 교재 개발 | 한자성어 | 다문화사회 |

Abstract

In South Korea nowadays, Among the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the proportion of long-term residents living in Korea for more than 10 years is increasing continuously(48%), while the proportion of short-term residents who are under 5 years is decreasing(16%). However,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related research in the Marriage and Immigration Women's Center are still focused on the initial immigrants. Therefore, we should classify married immigrant women according to their stay time in Korea, so that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teaching materials need to be more diversified. This study focuses on married immigrant women with intermediate and advanced Korean proficiency and chooses a catalogue of Chinese characters idioms to explore the possibility and educational value of using Chinese characters Idioms in Korean education.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Chinese characters idiom education can help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n language learning and information acquisi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life attitudes, cultural understanding and social adaptation, child rearing and learning guidance. This is the important par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at needs to be guided by married immigrant women. Based on this, 130 Chinese characters idiom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textbook development centered on married immigrant women were selected and catalogue edited in four stages.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serve as a reference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and textbook development for married immigrant women in the future.

■ keyword : | Married Immigrant Women | Korean Language Education | Teaching Materials Development | Chinese Characters Idioms | Multicultural Society |

I. 서론

한국 사회는 1990년대 후반부터 국제결혼이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8년 12월 기준으로 결혼이민자 수가 약 157,418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남성은 약 26,676명이며, 여성은 약 130,742명으로[1], 외국인 집단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문화사회에 들어선 한국의 다문화 집단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자녀, 북한 이탈 주민, 난민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며 정착한 결혼이민자 집단의 경우, 한국어와 한국문화·지식이 전무한 상황에서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2]. 따라서 오늘날 한국어 교육의 주 대상으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교육 등 많은 연구 분야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의사소통 및 이해능력이 개인 생활[3][4], 가족 관계[5][6], 사회 적응[7][8], 자녀 성장[9][10] 등 많은 측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어 의사소통 및 사회·문화 이해능력이 부족하면, 개인에게는 자신감 위축, 삶의 만족도 저하, 사회·문화 부적응, 가족 불화 및 부부갈등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 2세인 자녀의 성장 발달 및 의사소통 어려움, 학습부진, 또래 관계 문제 등 학교 및 사회생활 등의 부적응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한국어 교육이라는 사실은 여러 기존 연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하지만 각 기관에서의 한국어 교육 및 이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초기 입국자에게만 집중되어 있다. 결혼이민자 집단은 입국 초창기에 해당하는 가족형성기[11]의 결혼이주여성보다 한국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되어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일정 부분 할 수 있으며,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양육기와 자녀교육기, 사회생활에 진출하거나 진출하기 위하여 준비 중인 가족역량 강화기에 해당하는 자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국제결혼이 시작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 10년 이상 장기 정착비율이 증가하고(48%) 5년 미만의 단기 정착비율은 감소하는 추세(16%)[12]이다.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에서 교육의 대상은 아직도 초기

입국자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김선정·강진숙[13]에 따르면 학문을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거나 신문이나 잡지, 전문 서적 등을 읽고 이해하기를 원하거나 수준 높은 어휘 구사를 원하는 학습자에게는 한자성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한자성어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연구들은 학문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거나 중국인 학습자에 한정돼 있고, 교재 분석이나 대조 분석이 대부분이다[14-16].

이 연구는 초급이 아닌 중·고급 수준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자녀양육기, 자녀교육기 및 가족역량 강화기에 해당하는 결혼이주여성 중심의 한국어 교육에서 한자성어의 활용 가능성 및 교육적 가치를 탐색하고, 결혼이주여성을 중심 한국어 교육 및 교재 개발에 적합한 한자성어 목록 선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II. 이론적 논의

1. 결혼이주여성 및 한국어 교육

결혼이주여성은 결혼을 목적으로 결혼 비자를 발급받거나 영주권을 얻고 귀화한 유형으로 한국에서 체류 중인 이주여성 집단을 말한다. 한국인과 외국인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국제결혼은 2005년에 전체 결혼 건수의 11.2%에 달해 최고점을 찍은 이후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2016년에는 7.7% 정도 차지하였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그림 1]에 나타난 것처럼 결혼이민자·귀화자 중에 한국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의 비율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국 초기에 직면하게 되는 언어·문화 차이에 따른 어려움보다도, 이제 자녀 양육 및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를 더 크게 지적하게 되었다[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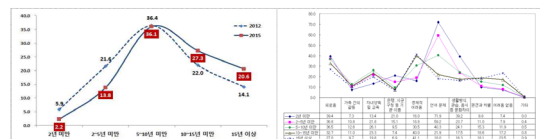


그림 1. 결혼이민자·귀화자의 한국 거주기간 및 거주기간별 한국 생활 어려움

이정에는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구사 능력은 한국 생활 적응 정도, 경제 활동 영역, 사회 연결망 구축, 언어학습 태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7]. 주미연·정명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이 결혼 안정성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6]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다른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전해정 외(2009)의 전국 143명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수준이 가족 건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7]. 황인욱(2010)이 분석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 관련 4개 하위 변수인 의사소통 적응, 대인관계 적응, 문화적 적응, 심리·정서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모두 한국어 사용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을 나타냈다[8].

다문화가정 2세인 자녀의 경우, 한국 사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체로 불리한 사회경제적 위치, 낮은 자아존중감, 높은 우울감, 학교생활 부적응, 학교 폭력, 인터넷 중독, 사회성 등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농촌 지역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은 결정적 시기에 원활한 언어적 자극의 부족으로 인해 언어발달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한국어에 미숙한 외국인 어머니로 인하여 언어적으로 원만하지 못하고 아울러 부모-자녀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의 부재로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의 언어발달능력은 대체로 낮은 수준으로 보이고 있다 [18].

이처럼 여성결혼이민자가 학부모로서 수행해야 하는 학부모 역할은 자녀가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에서부터 상담자로서의 역할, 자녀의 문제를 타인과 상의하고 문제를 결정하는 역할 등 다양하다[8]. 이러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역할에 따른 지식도 필요하며 또한 그 역할에 맞는 한국어 사용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이에 관한 언어 능력이 부족할 경우 학부모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기 어렵게 된다[9].

2. 한자·한자어와 한자성어

한국어의 어휘는 기본적으로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의 3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 이 중에서 한자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어휘 중의 70%에 달한다[19]. 한국어교육학 사전에 따르면 한자어는 한국어 어휘 가운데 한자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한국식

발음의 단어를 가리킨다[20]. 고급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한자어의 사용 빈도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 교육에서 초급 단계를 지난 중급·고급 학습자의 경우, 한자어 교육의 필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 한자어를 이루는 한자나 한문 교육은 일반 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 범교과 학습주제에서 한자 교육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한자 교육은 삭제되었다. 하지만 한자 교육은 초등학교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관련 기준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중요한 주제로서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한자 교육은 정보 통신 활용 교육, 보건 교육과 함께 관련 교과(군)의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문은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선택교과이며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교과 영역의 생활·교양에 속해 있다[21]. 이처럼 한자 및 한자어 교육은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모두 필요한 교육 내용이다.

한자성어는 한자 및 한자어의 집중적 구현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한자성어와 비슷한 개념으로 성어, 고사성어, 사자성어 등이 있다. 4가지의 개념이 비슷하지만 다소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다음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다.

표 1. 한자성어 개념 정리

성어	「1」말을 이룸. 「2」옛사람들이 만든 말. 「3」「언어」=관용구.
한자성어	한자로 이루어진 말. 교훈이나 유래를 담고 있다.
고사성어	옛이야기에서 유래한, 한자로 이루어진 말.
사자성어	한자 네 자로 이루어진 성어. 교훈이나 유래를 담고 있다.

한자성어, 성어, 고사성어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지만, 사자성어는 한자 4글자로 이루어진 성어이기 때문에 제한성이 있어 앞에 3가지 개념과 비교할 때 범위가 비교적 좁은 편이다. 한자성어에 대해서 한국어교육학 사전에서는 ‘한자로 이루어진 관용어를 말한다. 주로 옛이야기에서 유래된 말로 옛이야기에는 신화, 전설, 고전, 문학 작품 등이 포함된다. 한자성어는 교훈, 경우, 비유 상징어 및 관용구나 속담 등으로 사용되어 일상 언어의 표현을 풍부하게 해준다.’고 설명되어

있다[20]. 본 연구에서는 4가지 개념 중의 한자성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국내 거주 중인 결혼이주여성은 그들의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학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대부분 이주 초기 한국 사회적응을 위한 의사소통능력 배양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9].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결혼이주여성 중심 한국어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교재로는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뿐이다. 그 외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교재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가 있다. 결혼이민자 정착 기간별로, 특히 한국에서 체류 기간이 5년 이상이 된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중급 이상 수준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어 및 한국문화 이해교육과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는 다양화된 실용적인 한국어 교육 및 한국어 교재 개발이 지극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중·고급 수준의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할 때, 한자성어의 활용 가능성 및 교육적 가치를 탐색하고,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에 적합한 한자성어 목록을 선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III. 한국어 교육에서 한자성어의 교육적 가치

결혼이주여성의 특성을 살펴보면,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체류할 집단으로 다른 이주민 집단보다 한국 사회의 생활·문화 측면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한국의 다문화 가정 2세 자녀에게 학습지도 및 교육할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므로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전통이 반영된 특유의 습관적 표현[16]인 옛이야기로 만들어진 한자성어에 대한 교육은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자성어는 흥미성, 간결성, 체계성, 교훈성, 지혜성, 전통성, 사회성, 역사성, 문화성, 문학성 등의 특징이 있으므로 결혼이주여성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활동에 활용될 경우, 결혼이주여성의 언어학습·정보획득, 인간관계·생활태도, 문화이해·사회적응 및 자녀 양육·학습지도 등 측면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 ‘일거양득(一舉兩得)’을 넘어 ‘일거사득(一舉四得)’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1. 언어학습·정보 획득

한자성어 교육은 한국어 어휘 교육의 일부이지만, 학습하기 어렵고 일상 대화에서 잘 사용하고 있지 않은 현실로 인하여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아직까지 널리 활용되지 못하여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일상 생활과 사회정보를 실은 신문, 뉴스에서는 자주 등장하며 쉽게 볼 수가 있다. 최근의 신문을 찾아보면 다음 [표 2]와 같은 문장을 볼 수가 있다.

표 2. 신문에 나타난 한자성어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난 수사… 與가 시작하고 靑이 키워 - 문화일보, 2018.11.07.
대한민국 ‘四面楚歌(사면초가)’ 국정 방향 재설정 필요하다. - 문화일보, 2018.11.01.
韓, ‘우여곡절(迂餘曲折)’ 끝 이란제제 예외 인정에도 원유 도입감축 불가피 - 연합뉴스, 2018. 11. 05.
신성일 빈소 찾은 이희창 "고인 보며 '천의무봉(天衣無縫)' 생각나" - 연합뉴스, 2018. 11. 06.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에서 영주할 집단으로서 한국 사회에 대하여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한국어 능력이 필요하다. 한자성어를 활용한 결혼이주여성 중심의 한국어 교육은 결혼이주여성들은 풍부한 언어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동시에, 언어 사용 및 표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기본적인 의사소통보다 높은 종합적인 언어 이해 및 사용능력을 배양할 수가 있다. 이상은 최근에 신문에 실은 기사들이다. 이처럼 한자성어는 체계성과 간결성이 있어 사회정보나 생활정보를 실은 신문이나 뉴스 보도할 때 애용되고 있다. 사회 정보나 생활 지식을 얻을 때 가장 많이 활용하고 쉽게 적합할 수 있는 경로는 바로 신문과 TV 뉴스 등 미디어들이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자주 등장하고 재미있는 고사나 역사 이야기에서 나온 한자성어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은 결혼이주여성의 언어 학습 흥미 유발, 한국어 이해능력 향상 및 사회정보획득 등 측면에서 매우 필요할 것이다.

2. 인간관계·생활태도

간결하고 체계화된 한자성어는 표현력이 뛰어나고

내포되어 있는 이야기의 이미지가 생생하며, 몇 글자 안에 깊은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한자성어의 다른 특징으로서 교훈성, 지혜성 등이 있다. 예방 차원에서의 '망양보뢰(亡羊補牢), 방미두점(防微杜漸), 유비무환(有備無患)', 위험을 나타내는 '백척간두(百尺竿頭), 십년감수(十年減壽), 일촉즉발(一觸即發)', 처지를 나타내는 '내우외환(內憂外患), 사면초가(四面楚歌), 속수무책(束手無策)', 인간관계 중의 부부 관계를 나타내는 '일심동체(一心同體), 천생연분(天生緣分), 파경(破鏡)', 부모·자식 관계를 나타내는 '부자유친(父子有親), 부자자효(父慈子孝)', 효도를 나타내는 '반포지효(反哺之孝), 풍수지탄(風樹之嘆), 혼정신성(昏定晨省), 타자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동병상련(同病相憐), 역지사지(易地思之), 죽마고우(竹馬故友), 지음(知音)', 생활 지혜로서의 '거일반삼(舉一反三), 기우(杞憂), 모순(矛盾), 소탐대실(小貪大失), 시시비비(是是非非)', 처세 자세 및 생활 태도에 관하여 '고진감래(苦盡甘來), 고집불통(固執不通), 과전이하(瓜田李下), 권토중래(捲土重來), 좌정관천(坐井觀天), 지피지기(知彼知己)' 등이 있다.

한자성어는 지혜의 결과물로 풍부한 지식, 이치, 철학을 내포해 있으며,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성, 교훈성, 지혜성 있는 한자성어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은 언어학습과 동시에 긍정적인 인간관계 형성, 가족관계 증진, 친구관계 형성, 문제 해결 능력 향상, 바른 처세 자세 및 태도를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3. 문화 이해·사회 적응

언어와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언어에는 대량의 문화적 정보가 내포되어 있다. 한자성어는 세련된 언어표현으로서 사회 환경, 전통문화, 역사사건, 고대 언어, 문학작품, 관용어·속담에서 형성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통성, 역사성, 문화성, 문학성의 특징도 있으며, 한국문화의 집중적 구현이라 할 수가 있다. 역사 사건이나 역사 인물 및 신화에서 유래된 한자성어의 예로서는 '계란유골(鷄卵有骨), 함흥차사(咸興差使), 삼일천하(三日天下), 두문불출(杜門不出)' 등이 있다. 문학 작품에서 나온 한자성어는 '마이동풍(馬耳東風), 부귀부운(富貴浮雲), 수주대토(守株待兔), 홍일점(紅一點)' 등이 그의 예이다. 관용어·속담과 대응되는 한자성어로서 '당

구풍월(堂狗風月, 서당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등하불명(燈下不明, 등잔 밑이 어둡다), 설저유부(舌底有斧, 혀 밑에 도끼 들었다), 식치식란(食雉食卵, 꿩 먹고 알 먹고), 오비삼척(吾鼻三尺, 내 코가 석 자다), 오비이락(鳥飛梨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등이 있다. 풍습습관에서 유래된 한자성어로서 '동가홍상(同價紅裳), 생삼사칠(生三死七), 신토불이(身土不二), 호생오사(好生惡死)' 등을 예로 들 수가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한자성어 학습을 통하여 한국문화를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한국 국민의 사고방식 등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으며, 한국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국인과의 의사소통도 한층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4. 자녀양육·학습지도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어 학습 동기 중의 하나는 자녀 양육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의 역사, 문화, 문학 등에 대해 배경 지식이 부족하여 자녀 양육 문제 및 학습지도 어려움으로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한자성어 중 자녀 양육, 자녀 인생관·가치관 배양, 학습지도 방법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한자성어도 손쉽게 찾을 수가 있다.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三遷之教(삼천지교), 언전신교(言傳身教), 인제시교(因材施教), 현모양처(賢母良妻), 부전자전(父傳子傳)', 자녀 인성 교육에에서 '결초보은(結草報恩), 당금여석(當金如石), 명실상부(名實相符), 선입견(先入見), 언행일치(言行一致), 이덕보원(以德報怨), 자승자강(自勝自強), 타산지석(他山之石), 형우제공(兄弟弟恭), 노력 및 성취에 관한 한자성어는 '교학상장(教學相長), 다기망양(多岐亡羊), 독서백편의자현(讀書百遍義自見),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 주경야독(晝耕夜讀), 청출어람(靑出於藍), 형설지공(螢雪之功), 권토중래(捲土重來), 대기만성(大器晚成), 등용문(登龍門), 천재일우(千載一遇)' 등이 있다.

이상호 외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외국인 어머니가 한국어를 제대로 습득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면 언어 습득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며, 이후의 학교 생활에서 기초 학습 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학습 부진, 또래 관계악화, 자존감 약화로 이어져 인간관계 불화

및 사회 불만 등으로 인하여 삶의 의욕이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22]. 앞의 이론적 논의에서 언급하였듯이 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한문·한자 교육이 추가하게 되어 한자어 및 한자 실력이 요구된다.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은 개인의 한국 생활 적응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 및 교육지도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한자어 및 한문의 대표인 한자성이 교육은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꼭 가르쳐야 할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IV. 결혼이주여성 중심 한자성어 목록 선정

이상으로 언어학습과 생활·정보 획득, 인간관계 형성과 생활태도 향상, 문화 이해와 사회 적응, 자녀 양육·학습 지도 등 측면에서 결혼이주여성 한국어 교육에서 한자성어의 교육적 가치를 탐색해보았다. 그 결과 결혼이주여성 중심 한국어 교육에서 한자성어를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제 결혼이주여성 중심 한국어 교육용 한자 성어 목록을 선정하기 위하여 결혼이주여성의 특성 및 한국어 학습 목적을 고려하여 다음 [그림 2]과 같은 과정을 걸쳐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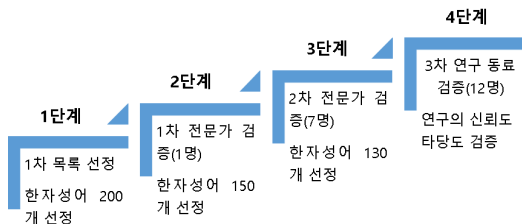


그림 2. 한자성어 목록 선정 절차 및 타당도 검증

1단계-한자성어 1차 선정

2018년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을 걸쳐 먼저 여러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출제된 한자성어를 검토하였다. 그 중에서 TOPIK 한국어능력시험, KBS 한국어능력시험은 외국인을 대상 한국어 능력 검증 시험이다. 그 외에 내국인 대상 TOKL 국어능력시험, 한자자격시험도 포함하였다. 그리고 『지혜와 교양의 길잡이 고사성어』, 『한국 고사성어』, 『살아있는 한국어-한자성어』 한

자성어 관련 서적을 살펴 출현 빈도가 높은 한자성어 200개를 1차적으로 추출하였다.

2단계-1차 1인 전문가 평가

2018년 11월에 전문가 집단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먼저 10월 말에 1단계에서 선정한 200개의 한자성어에 대하여 1차 1인 전문가 검토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 한국어 한자 교육 연구 수업 담당 교수의 도움을 받아 생활 속에서 실제로 자주 사용하지 않은 한자성어에 대해 검토를 받아 150개를 선정하여 2차 한자성어 목록을 선정하였다.

3단계-2차 7인 전문가 평가단 평가

11월 말까지 7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평가단 평가를 받아 2단계에서 선정한 150개의 한자성어에 대하여 2차 타당도 검증 과정을 수행하였다. 전문가 평가단의 구성은 현직 한국어 교사 2명, 현직 중등 교사 2명, 다문화 교육 연구자 2명, 사회교육학 분야 1명으로 구성하였다. 평가 내용은 선정한 한자성어의 대표성, 결혼이주여성 언어 능력 향상, 문화적응 제고 및 사회이해 강화 가능성, 부모로서 자녀 양육 및 학습지도 측면에서의 학습 필요성 등 다섯 가지로 나누어 설문지를 구성해 5점 척도를 활용해 평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평가단 구성원 7명이 모두 결혼이주여성 중심 한국어 교육에서 한자성어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관점이었다.

4단계-한자성어 선정 및 3차 동료 타당도 검사

2018년 12월에 3단계에서 7명의 전문가 평가단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총점 70점 이상인 한자성어 중 총점이 많은 순으로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130개의 한자성어를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4단계를 걸쳐 최종적으로 선정한 한자성어 및 연구 결과를 2019년 1월 월례세미나에서 보고를 하여 같은 연구실 연구 교수 및 연구 동료 12명에게 연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에 대하여 3차 검증을 받은 후 최종 연구 결과물을 수정·보완하였다.

위와 같은 단계를 걸쳐 선정한 결혼이주여성 교육용 한자성어를 점수 높은 순으로 나열하면 다음 [표 3]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3. 결혼이주여성 교육용 한자성어 목록

1	만장일치	34	금상첨화	67	응두사미	100	부창부수
2	작삼삼일	35	동고동락	68	유비무환	101	호사다마
3	역지사지	36	동명상련	69	일망타진	102	함흥차사
4	일석이조	37	부전자전	70	현모양처	103	마이동풍
5	만수무강	38	설상가상	71	시시비비	104	파경
6	고집불통	39	일장일단	72	어불성설	105	언중유골
7	백발백중	40	동상이몽	73	동분서주	106	좌불안석
8	십년감수	41	신도불이	74	십시일반	107	수수방관
9	고진감래	42	우여곡절	75	결초보은	108	아전인수
10	과유불급	43	우왕좌왕	76	반신반의	109	사필귀정
11	구사일생	44	이열치열	77	부자유친	110	경국지색
12	금시초문	45	자업자득	78	청출어람	111	반포지효
13	백전백승	46	대기만성	79	군계일학	112	실사구시
14	권선징악	47	대동소이	80	막상막하	113	환골탈태
15	선입견	48	속수무책	81	새옹지마	114	계란유골
16	일거양득	49	오비이락	82	천고마비	115	교학상장
17	자초지종	50	전무후무	83	두문불출	116	천재일우
18	다정다감	51	어부지리	84	사면초가	117	형설지공
19	천생연분	52	우유부단	85	애지중지	118	풍수지탄
20	감언이설	53	일취월장	86	철두철미	119	상전벽해
21	견물생심	54	좌충우돌	87	팔방미인	120	소탐대실
22	천차만별	55	거두절미	88	형설수설	121	삼일천하
23	비몽사몽	56	전화위복	89	온고지신	122	각주구경
24	유언비어	57	죽마고우	90	팔목상대	123	난형난제
25	일심동체	58	백문불여일견	91	주객전도	124	구우일모
26	자포자기	59	이심전심	92	기우	125	등화기친
27	진수성찬	60	일촉즉발	93	명실상부	126	삼천지교
28	노심초사	61	내유외강	94	파죽지세	127	쾌도난마
29	다다익신	62	지피지기	95	내유외환	128	등하불명
30	동문서답	63	탄산지석	96	사이비	129	수구초심
31	모순	64	금의환향	97	주경야복	130	파천황
32	갑론을박	65	불가사의	98	우이독경		
33	개과천선	66	십중팔구	99	조심모사		

사회 적응 (36)	만수무강, 만장일치, 사이비, 사필귀정, 삼일천하, 상전벽해, 새옹지마, 설상가상, 수구초심, 신도불이, 십시일반, 오비이락, 유언비어, 이심전심, 이열치열, 일거양득, 일석이조, 전무후무, 전화위복, 진수성찬, 천고마비, 쾌도난마, 파죽지세, 함흥차사, 현모양처, 호사다마
자녀 양육 학습 지도 (29)	각주구경, 개과천선, 과유불급, 팔목상대, 군계일학, 내유외강, 대기만성, 등화기친, 백문불여일견, 부친자전, 삼천지교, 선입견, 실사구시, 언중유골, 온고지신, 응두사미, 일장일단, 일취월장, 자업자득, 자포자기, 작삼삼일, 조심모사, 주경야복, 천재일우, 철두철미, 청출어람, 탄산지석, 형설지공, 환골탈태
기타 (24)	거두절미, 구우일모, 금시초문, 노심초사, 대동소이, 명실상부, 모순, 반신반의, 백발백중, 백전백승, 불가사의, 십년감수, 십중팔구, 어불성설, 우왕좌왕, 우이독경, 일망타진, 자초지종, 좌불안석, 좌충우돌, 주객전도, 천차만별, 파천황, 형설수설

V. 결론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 중심 한국어 교육에서 한자성어의 활용 가능성 및 교육적 가치를 탐색하였다. 연구한 결과 한자성어 교육은 결혼이주여성의 언어학습·정보획득 측면, 인간관계·생활태도 측면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 결혼이주여성 중심 한국어 교육에서 지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이와 더불어 결혼이주여성 중심 한국어 교육 및 교재 개발에 적합한 한자성어 130개를 4단계 과정을 걸쳐 교육용 목록을 선정 및 제시하였다.

초기 결혼이주여성의 수가 줄어들고 자녀 양육이나 자녀교육기·가족역량개발기에 놓여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오늘, 체류 기간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및 교육 방안 개발, 교재의 다양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가 향후 결혼이주여성 중심 한국어 교육 연구 및 교재 개발에 활용되는 참고 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며, 2차 ‘한자성어를 활용한 결혼이주여성 한국어 교육방안 개발’ 연구를 추후 연구로 진행하고자 한다.

앞선 III장에서 한자성어의 교육적 가치를 ‘언어학습·정보 획득’, ‘인간관계·생활태도’, ‘문화 이해·사회 적응’, ‘자녀양육·학습지도’ 등 4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이 4가지 측면에 맞추어 최종적으로 선정한 130개의 한자성어를 한국어 교육 목적별로 재정리하여 다음 [표 4]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표 4. 교육적 가치별 한자성어 분류

교육적 가치	해당 한자 성어	교육적 가치
인간 관계 생활 태도 (41)	감언이설, 견물생심, 결초보은, 고진감래, 고집불통, 구사일생, 기우, 난형난제, 내유외환, 다정다감, 동고동락, 동문서답, 동명상련, 동분서주, 동상이몽, 두문불출, 막상막하, 반포지효, 부자유친, 부창부수, 비몽사몽, 사면초가, 소탐대실, 속수무책, 수수방관, 시시비비, 아전인수, 애지중지, 어부지리, 역지사지, 우여곡절, 우유부단, 유비무환, 일심동체, 일촉즉발, 죽마고우, 지피지기, 천생연분, 파경, 팔방미인, 풍수지탄	언어 학습 정보 획득 (130)
문화 이해	갑론을박, 경국지색, 계란유골, 교학상장, 권선징악, 금상첨화, 금의환향, 다다익신, 등하불명, 마이동풍,	

참 고 문 헌

[1] http://www.immigration.go.kr/viewer/skin/doc.html?rs=/viewer/result/bbs/227&fn=temp_

1548051021246100

[2] 왕한석,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언어 적응의 제 양상,” 답화-인지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3-17, 2006.

[3] 이영균, 이민자,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생활 만족도 관계,”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0권, 제3호, pp.53-76, 2016.

[4] 이은주, 전미경,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와 관련 변인 메타분석,” 한국사회정책, 제21권, 제4호, pp.9-44, 2014.

[5] 이은경, “다문화 가정의 통합을 위한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방안-서울 지역 다문화프로그램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언어사실과 관점, 제42권, pp.267-289, 2017.

[6] 주민연, 정명혜, “광주·전남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이 결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지역사회연구, 제26권, 제2호, pp.25-43, 2018.

[7] 이정은, “이주자의 한국어 의사소통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고찰: 광주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면담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제44권, pp.255-279, 2016.

[8] 황인옥,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상남도 창녕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43권, 제1호, pp.107-133, 2016.

[9] 노정은, 박진욱, “학부모 역할을 고려한 수행 중심 한국어 교육 방안,” 다문화콘텐츠연구, 제15권, pp.147-188, 2013.

[10] 이상호, 김대균, 박균열,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응력 함양에 관한 연구,” 윤리교육연구, 제36권, pp.239-258, 2015.

[11] 복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pp.1-57, 2008.

[12] 여성가족부,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 pp.1-35, 2018.

[13] 김선정, 강진숙, “한자성어 교재 개발의 구성 방향 및 단원 제시,” 외국어교육, 제14권, 제2호, pp.339-359, 2007.

[14] 송향근, 고건, “한국어 사자성어 어휘 교육 방안 연구,” 한국사전학, 제13호, pp.171-189, 2009.

[15] 김억조, “한국어 교육을 위한 사자성어 선정과 제시 방안,” 한민족어문학, 제79권, pp.39-60, 2018.

[16] 박덕영,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위한 사자성어 교육 연구,” 한국어교육연구, 제5호, pp.23-42, 2016.

[17] 전혜정, 민성혜, 이민영, 최혜영, “결혼이주여성 가족 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한국가족복지학, 제14권, 제2호, pp.5-27, 2009.

[18] 서현, 이승은,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2권, 제4호, pp.25-47, 2007.

[19] 근보강, “중국인 학습자 한국어 한자어 습득 연구,” 어문연구, 제40권, 제3호, pp.445-470, 2012.

[20]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한국어교육학 사전, 도서출판 하우, 2014.

[21] 온정덕,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초등학교) 개발 연구,” 교육부, pp.1-278, 2013.

[22] 이상호, 김대균, 박균열,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응력 함양에 관한 연구,” 윤리교육연구, 제36권, pp.239-258, 2015.

저 자 소 개

이 춘 양(Chun-Yang Li)

정희원



- 2013년 8월 : 계명대학교 일본학과/한국문화정보학과(국제학사, 문학사)
- 2016년 8월 : 동국대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문학석사)
- 2019년 2월 :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전공(박사 수료)

<관심분야> : 한국어교육 연구, 이중언어교육 연구, 다문화교육 연구

조 지 형(Ji-Hyeong Cho)

정희원



- 2003년 2월 : 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국어교육 전공, 문학사)
- 2008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한국고전문학전공, 문학석사)
- 2014년 2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한국고전문학전공, 문학박사)

<관심분야> : 한국고전문학 연구, 한문고전 번역, 한국어교육 연구